

불광연구원, 포교 100년 진단

종도교육 없으면 포교도 없다

김응철 교수, “사회변화 무관심·엘리트층 방치하고 있다”
박경준 교수, “공격적 낚아삼의 ‘포교’보다 ‘전법’이 옳다”

최근 한국 불교계의 포교활동은 지난 100여 년과 비교했을 때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산과 사찰에 국한된 현상이다. 여전히 고답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10월 16일 불광법회 창립 36주년을 즈음해 ‘부처님의 전법행과 전법교화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연설회에서 “농경사회의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포교활동은 산업사회를 거쳐 고도정보사회로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한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의 정신과 방법’을 통해 부진한 포교활동의 원인을 “불교 포교의 근본적 문제는 불교계 내부에 있다”며 성찰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먼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교계 전통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의 각 스님들의 승복은 50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강원의 스님들이 배우는 경전의 내용은 340여 년 전에 채택된 과목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 최근 의전을 더 포함시키지는 했지만 내전 중심의 강원교육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찰의 건축도 천년이 지난 건축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초허부법회는 초기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교전통에 대해 김 교수는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불교계의 전통문화 고집은 포교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전통문화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문화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에 따른 시민과의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응철 교수

김 교수는 다종교사회의 도래로 불교문화재 훼손문제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웃종교인들 중 배타성이 강해 불교를 타도와 공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불교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뤄내고 전통문화 유산을 고집스럽게 지켜내야만 한다. 그래야 후세에 우리민족문화의 원형을 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포교활동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불교계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찰만 만들면 저절로 포교가 될 것이라는 안이한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다수의 스님들은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왜냐하면 수행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열심히 수행하면 포교는 원하지 않아도 성과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그 결과 포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배출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중산들이 구성된 교육을 담당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불교계 전반의 포교 역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교 수행법들 중 한국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박경준 교수

“한국불교의 주요 문헌과 수행관련 연구들을 외국어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불교는 이웃종교의 성장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현상을 보여 왔다. 김응철 교수는 이런 문제의 요인을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불자의 비율이 매우 적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좀 더 근원적으로 분석해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불교는 대중포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했지만 사회 엘리트 계층의 교화에 소홀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체가 급속

히 정착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에서는 이에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며 “불교는 조직화된 신도층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고 관심도 결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포교활동의 해결방안이 부처님의 전도선언의 내용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포교활동의 성패는 교육받은 신도, 조직화된 신도, 그리고 활동하는 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며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고 직접 교화시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도선언의 내용 속에는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조직·복지·문화·수행·포교 등의 원리가 모두 함축돼 있으며, 전통적 법회와 설법 포교의 이념과 목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전법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공격적인 의미를 지닌 포교보다는 ‘교법을 전하여 줌’을 뜻하는 ‘전법(傳法)’이라는 용어가 더 불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포교’라는 단어의 ‘포(布)’에는 약간 공격적인 낚아삼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과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너은 기자
bohyung@buddhania.com



불광법회를 창립한 광덕 스님은 “어린이는 부처다”라며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했다.

사회화 · 거사불교로 근대를 열다

불문연,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 출간

학계에서는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를 한국불교 근대기로 부른다. 근대의 기점은 1876년의 개항 또는 1895년 승려들의 도상출입금지 해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대불교의 시작은 개항이나 입성 해금의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며 불교계 내부에서 민족불교를 수립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과 고뇌가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불교는 불교의 사회화, 중국은 출가자 중심을 넘어서 거사불교가 활발하게 펼쳐졌으며, 일본에서는 불교계 인사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최근 동아시아 불교가 근대에 들어서며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동국대학교출판부)을 출간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으로 선정된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라는 총괄주제의 연구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은 이러한 연구 가운데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과 불교문화의 변용 비교’라는 주제의 1단계 사업을 총괄, 정리하는 네 번째 연구결과물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은 △근대국가와 불교 민족주의 △근대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운동 △근대불교학의 새로운 모색의 3부로 구성됐다. 불교의 정치적 지향, 사회 또는 입성 해금의 시기보다 훨씬 더 앞서며 불교계 내부에서 민족불교를 수립하기 위한 정체성 모색과 고뇌가 치열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 중국은 출가자 중심을 넘어서 거사불교가 활발하게 펼쳐졌으며, 일본에서는 불교계 인사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최근 동아시아 불교가 근대에 들어서며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동국대학교출판부)을 출간했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으로 선정된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라는 총괄주제의 연구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은 이러한 연구 가운데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과 불교문화의 변용 비교’라는 주제의 1단계 사업을 총괄, 정리하는 네 번째 연구결과물이다.



‘동아시아...’ 표지

할을 담당했다. 일본은 메이지기에 나타난 사회주의 운동에 코토쿠 슈스이, 사카이 도시

히코 등 불교계 인사 일부가 참여해 사회와 대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부 ‘근대불교학의 새로운 모색’에서는 근대불교학의 연구방법론과 그 성과,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재해석한 중국 학설계의 동향에 대해 고찰했다. 중국에서 동서철학의 접점 형태로 나타난 불교와 서양 철학, 양자를 대표하는 유식불교와 칸트에 대한 재해석을 대비시켜 분석했고, 20세기에 전개된 불교와 유학 간의 논쟁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사유의 근대적 모색을 추적했다.

이번 연구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영실·국문학과 김성일 교수,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부교수, 김제란·원영상·한상길 연구교수, 김기종 고려대 연구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기업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원, 조승미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너은 기자

‘서구 불교운동 의미’ 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신진 연구자 자유발표 시간도 마련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5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서구 불교 운동의 문화사적 조명’이다. 동양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구에 전파된 과정과 이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회에서 박성배 교수(미국 스토니브룩주립대)가 ‘서구 불교운동의 문명사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1960년대 서구의 반문화운동과 불교의 수용’,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서구불교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을 발표한다. 자유발표에는 2010년 불교학부 박사학위 취득회원을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나선다. 불교학부 사학분과에서는 △현석 스님(동국대, 해인사 강사의 ‘회암 대회를 통해 본 조선불교사 재고’) △요경 스님(동국대 인도철학 박사)의 ‘대한불교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한글본 번역에 대한 일고(一考)’ △진관 스님(동국대 선학 박사과정)의 ‘개화승 이동인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응용불교분과에서는 △권경희 전 임강사(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상담학전공)의 ‘서양 상담심리학과 초기 불교의 성장(growth)에 관한 비교 고찰’ △박동준 소장(동아시아사문화

연구소)의 ‘자하 신의의 <남다시병서(南茶詩序)> 연구’ △자명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과정)의 ‘선문답의 원리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된다.

김용표 회장은 “신진 연구인력들의 자유발표를 통해 신학문 동향의 흐름을 함께 살펴 불교학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너은 기자

불교학연구회, 논문 모집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은 12월 31일 발간 예정인 ‘불교학연구’ 제27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학회 이메일 (bulgyohak@yahoo.co.kr)로 보내면 된다. (031)985-1627

화제의 신간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1권 · 2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 재혈의 과정과 결과가 곧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학의 핵심과제이고 최종의 목표다.
- 그래서 ‘실룡3년, 재혈10년’의 대명제가 영원한 의미로 끊임없이 전해온 것이라.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재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써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1권 鳳田 鄭日均 著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2권 鳳田 鄭日均 著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著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새로운 滿天齋 풀이 1·2 신국판/慧源 羅明祺 著/각 40,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승월 스님 著/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승월 스님 著/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처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著/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著/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청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청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청 봉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